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함께 그리자

202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특집

려국열대표 : 인재자원 '활수'를 활성화해야

려국열대표

"동북 진흥은 인재를 떠날 수 없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길림대학 베쥔제 1병원당위 서기인 려국열은 "우리는 풍부한 인재군체를 보유하고 있다. 동북지역에는 26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중 부속대학이 10개이고 본과대학이 139개이다. 이중에서 9개 대학은 전국 100대 대학에 들었다."라고 피로했다.

려국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차원 인재 육성, 격려 및 평가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부동한 차원과 경로의 인재 특점에 따라 인재자원 '활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인재의 육성 면에서 동북지역의 량질 교육자원 우세를 실제적으로 발휘시키고 현지 취업 정책의 편중을 확대하여 본기 우수 졸업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인재 영입 면에서 다차원의 인재 영입 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필요한 인재의 류형, 수량과 질을 더욱 잘 분석, 연구판단하며 영입 인재의 류형을 확대하여 공평하고 접근가능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큰가마밥', '철밥통'의 사고 방식을 떠나 새 시대 동북 전면 진흥에 적합한 인재의 사용, 평가 및 격려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인재와 일터의 배합 기제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와 일터의 부족 및 인재의 전문 배경, 능력과 자질, 개인의 소망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치한 인재를 적합한 위치에 타당하게 배치하여 인재의 우세와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게 해야 한다.

"량호한 인재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려국열은 인재봉사체계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인재 영입 제반 사업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제때에 추적, 해결하여 전반적인 련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젊은 간부의 선임과 직함 평가 초빙 체계를 최적화하여 인재들로 하여금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진정으로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갖고 혁신력과 경쟁력을 더욱 잘 방출하도록 해야 한다.

"동북로공업기지의 과거 휘황은 국가의 인재 수송과 같은 중요한 부축과 갈라놓을 수 없으며 '북상정신'의 영향이 깊다." 려국열은 새시대 동북 전면 진흥은 국가 '5대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고도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인재정책의 경사와 지력 수송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중점은 동북지역 인재사업 록색 통로의 개척을 추진하고 인재 선발에서 관례를 타파하여 적절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다. "대량의 고급 기술인재를 동북으로 끌어들이고 동북에 남고 동북에 정착하도록 하며 핵심기술을 돌파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흥학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형 인재와 혁신 창업의 선도적 인재를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 길림일보

조정대표 : 혁신으로 중의약 발전의 새 동력을 활성화하자

조정대표

"중의약은 독창적인 우세를 가진 과학기술 자원이자 우리 나라의 자주적 혁신을 실현하는 데 큰 잠재력이 있는 분야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조정대표는 중의약의 독창성, 과학기술 선도, 발전 동력을 증강하는 면에 중점을 두고 건의를 내놓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의약은 전통 계승을 기초로 혁신해야 하고 현대과학으로 중의약학 원리를 해석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또한 전통 중의약과 현대과학의 결합과 촉진을 추동하여 중의약 리론과 실천의 시대적 응용 가치와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조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의약의 혁신 인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의약의 독창성을 격려하며 중의약 발전의 새 동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난제 해결 방향을 명확히 하며 중의치료 우세 병종을 중점적으로 선별, 보급하여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의약이라는 귀중한 재부를 잘 계승하고 잘 발전시키고 잘 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중의약 과학연구 성과의 림상 전환과 응용을 가속화하고 전략적이고 전망적이며 장원한 안목으로 중의약의 중점 분야에 모를 박고 전국 중점실험실을 건설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전개해야 한다. 중의약 지식 리론에 맞춰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관건적인 난관기술을 돌파함으로써 중의약의 전승, 혁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 시범기업의 중의약 관련 경험과 기술 성과에 충분히 의탁하고 이를 활용해 중의약의 현대화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이어 조정은 "동시에 중국 전통 의학의 '예방의학(治未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수정, 전승, 혁신의 토대에서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빌어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규범화해야 한다." 며 "또한 중의약 심사평가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중의약 신약 출시 속도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중의약 의료시장의 감독관리 사업을 깊이 전개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중의약 혁신산업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길림일보

련일, 전국 량회에 참석한 녀성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리행하면서 분발전진하는 녀성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 길림일보

랭향양위원 : 대학교의 조직적인 과학연구 강화해야

랭향양위원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대학교는 미래의 과학기술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한 장소로서 최근년간 국가 과학기술혁신에서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대학교들이 신형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하고 조직적인 과학연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지지하도록 추진할 것인가가 바로 랭향양위원이 주목하는 중점이다.

랭향양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수요가 부단히 증가됨에 따라 대학교의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는바 전통적인 자유탐색을 기반으로 한 과학연구 모식은 계통성이 강하지 못하고 동질화 문제가 심각하며 과학연구 성과의 전환률과 응용률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랭향양은 자신의 건의를 제기하였다.

"제도를 선행하고 조직적인 과학연구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를 최적화하고 조직적인 과학연구의 날개를 펼쳐야 한다. 인재고지를 건설하고 조직적인 과학연구의 근본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학과가 협동하고 조직적인 과학연구의 망(网)을 건설해야 한다.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적인 과학연구의 검(剑)을 주조해야 한다."

랭향양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과학연구 관리제도를 건립 및 완비하고 과학연구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과학연구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연구 인원들이 과학기술혁신에 적극 뛰여들도록 격려하며 국가전략 과학기술 력량을 강화하여 산업 발전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랭향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연구 요소에 대한 조직적인 통합을 진행하고 고효률의 운행기제를 구축하여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의 유기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대학교의 과학기술 성과 평가가 '성과 수량'에서 '실제 기여'에로 전환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랭향양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차원인재·전문인재·첨단인재·희소성인재'(高精尖缺) 분야와 장원한 발전 목표를 겨냥해야 하며 일류대학에 의탁해 일련의 전략과학자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팀을 선별, 구축해야 한다. 과학연구일군들에게 량호한 직업 발전 공간과 대우 보장을 제공하여 그들의 혁신 열정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대학교들을 인도하고 조직하여 학과 장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학과와 서로 다른 분야간의 교차융합과 협동혁신을 추동하며 군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랭향양은 국내외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기업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중대한 다학과, 다분야 학과의 국제연구 계획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여 개방적이고도 협력적인 과학연구 혁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랭향양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분야내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중요 인재쎈터와 혁신고지를 다그쳐 건설하며 우세 력량을 집중해 관건 핵심기술 난제를 공략함과 더불어 독창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전세계 과학기술 산업사슬에서의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국 지혜제조의 근본과 주동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뒤따라 달리기', '동등하게 달리기'에서 '선두를 달리기'에로의 진정한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

/ 길림일보

지일대위원 : '풍교'경험을 발양하여 소송 근원 치리를 잘해야

지일대위원

"소송 근원 치리는 예방성 법률제도의 중요한 방면이자 새시대 '풍교경험'의 심화와 발전이며 더욱 많은 법치 력량이 인솔과 소통에 힘을 기울이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는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고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길림 주재 전국정협 위원이며 길림성공승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지일대는 소송 근원 종합치리 효능을 향상시킬 데 관한 제안을 준비했다.

"바로 지난달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민법원 사건사례베이스가 정식으로 가동되여 사회에 개방되였다." 지일대는 '사건사례베이스'의 건설을 유리한 계기로 빅데이터 방법을 리용하여 사법 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와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관련 법률 규정과 재판 관점을 정리, 총화하며 빅데이터의 응용 구축을 통해 소송 근원의 치리 효능을 증강해야 한다고 피로했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변호사 대오는 법치 력량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모순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 및 변호사협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변호사 조정사무소의 설립을 모색하며 립건단계에서 기본 사실이 분명하고 분쟁 초점이 명확한 민사, 상사 사건은 법률사무의 변호사가 소송전에 조정을 주관하도록 인도하여 변호사의 소송 근원 치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풍교식 인민법정'이 소송 근원 치리에서 기층 보루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도록 하고 능동사법 리념을 견지하며 실질적으로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중시하고 사법 조정, 인민 조정, 법치 선전, 시범성 사례의 재판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법에 의해 법치 분야에서의 인민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모순과 분쟁을 근원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지일대는 "이외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의 건설을 심화하고 모순분쟁을 원천에서 예방하며 전단계(前端) 다원화 해소를 추진하면 소송사건을 원천에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층사회의 치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소송 근원 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 1면에서

《인민일보》 기자가 호옥정에게 "길림성은 4년 련속 음력설후 출근 첫날에 경영환경 최적화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대회를 소집했는데 외부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가? 길림성은 또 어떤 중량급 정책 조치를 내놓았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고 질문했다.

호옥정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최근년간 길림성에서는 '경영환경 최적화를 토대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자'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고 세계은행의 표준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제반 개혁 조치를 현지에 시달하고 실시를 추진하면서 '환경을 우수하게 하고 프로젝트를 틀어쥐며 예기를 강화하고 신심을 높인다'는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는데 투자 유치 증가 태세가 강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 환경보호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문화관광 발전이 두터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길림의 전면 진흥은 상승기의 쾌속도로에 진입하여 투자흥업의 열토(热土), 혁신 창업의 복지로 되였다. 올해 우리는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 행동을 실시하여 경영주체와 대중의 감수를 기준으로 고효률적이고 편리한 정무환경, 보장이 유력한 요소환경, 경쟁이 질서있는 시장환경,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환경,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신용환경, 포용적이고 외향적인 개방환경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경영환경의 재최적화, 재제고와 재돌파를 추진할 것이다. '비대면 심사비준'을 추진하고 수요를 선도로 '주문식' 방권부능(放权赋能)을 실시하며 디지털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능률적으로 한가지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처리할 때 남에게 부탁하지 않기'를 추진할 것이다.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리념을 수립하고 '의견 접수 즉시 처리', '면제 신청 즉시 향유'를 추진하여 각종 요소 배치 효률을 높일 것이다. 전국의 통일적인 대시장 포치를 실시하고 진입장벽을 타파하며 각종 경영주체를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원, 화물의 길림 출입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법에 의한 행정,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견지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고 안심하고 창업하며 편안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왕자련, 양영수, 장희, 손광지, 만도라, 홍경 대표가 각각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대표들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했고 자신감이 넘치고 솔직했다. 교류와 대담은 우호적이고도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질문이 끝났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여흥이 남아있었다.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은 모두를 기대로 차오르게 했다.

부단장 고광빈이 회의를 주재했다. 부단장들인 채동, 가효동이 심의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